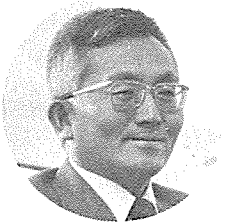


2 백년전의 宇宙觀

「醫山問答」 「熱河日記」에
「外界人存在가능성 기록」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교수 · 科學史〉

거의 10년전 국내에서도 상영된 E.T.라는 영화는 미국에서 만들어져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다. E.T.란 말은 외계인을 뜻하는 영어(extraterrestrial)에서 딴 말인데, 그 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걸핏하면 우주인이니 외계인이니 하는 우리말 대신 E.T.란 말을 흔히 쓰게 되었다. 외계인이나 우주인에 대한 영화가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영화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아주 유명한 우주 여행을 주제로 한 공상과학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서 연속물로 방영되어 인기를 누린 일도 있다. 우주인을 다룬 공상과학소설은 서양에서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지금까지도 과학 기술을 픽션화하는 일에는 거의 성공한 일이 없다. 소설을 보면 계몽소설이 판을 치던 초기단계를 지나 애정소설, 사회소설, 탐정소설 등은 나왔지만 공상과학소설은 전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그만큼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분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이런 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백년 전에 宇宙人의 존재가능성을 상상

하지만 공상과학소설의 가장 많은 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우주인에 대해서는 이미 2백년전의 우리 조상들이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E.T.를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는 우선 조선시대의 대표적 실학자이며 소설가인 燕巖 朴趾源(1737-1805)을 들 수 있다. 〈허생전〉 〈양반전〉 〈호질〉 등의 소설로도 너무나 잘 알려진 박지원은 1780년 청나라를 다녀와 중국기행을 〈熱河日記〉로 남겼고, 이 작품은 우리 기행문학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한글로 번역된 것이 1000페이지를 넘는 분량이니 대작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바로 이 여행기에 박지원은 우주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적어 놓은 것이다. 그 해 8월 13일 그는 중국의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太學에 머

물면서 중국학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太學留館錄”이다. 그날 저녁 달빛은 유난히 밝아 박지원은 중국학자와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추석 이튿전의 밤이었으니 고향을 떠난 그에게는 달을 보는 감회가 유별났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얼음속에는 누애가 있고, 불속에는 쥐가 살며, 물속에는 물고기가 논다. 이들 생물에게는 그들이 사는 곳이 곧 그 땅이 되는 셈이다. 만약 달 속에도 하나의 세계가 있다면 오늘 밤 난간에 두 사람이 기대어 땅빛의 차고 기우는 이치를 토론하고 있지 않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얼음속에 사는 누애와 불속에 사는 쥐, 그리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저기 달속에는 인간 비슷한 지적인 존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박지원의 말이었다. 얼음속의 氷蠶와 불속의 火鼠란 중국의 옛글에 나오는 것이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환경에 따라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구와 환경이 다른 달에는 그 환경에 맞는 인간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 말을 들은 중국의 학자는 그 생각이 아주 기이하고 흥미있다고 감탄하면서 그것이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그런 주장을 전에 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지원은 이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자기 친구 湛軒 洪大容(1731~1783)의 말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어 홍대용은 地轉說을 처음으로 주장했다고도 소개했다. 지구가 하루 한번 자전하여 낮과 밤이 생긴다는 주장은 동양 사람으로는 홍대용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다른 부분인

“마치 얼음속에 사는 누애와 불속에 사는 쥐, 그리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저기 달속에는 인간 비슷한 지적인 존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박지원의 말이었다.”

“그는 박지원 보다 14년이나 앞서 1766년 중국을 방문했고, 그 여행의 기록을 상세하게 적어 남겼는데 이것이 <燕記>란 작품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 못지 않은 훌륭한 기행록이다.”

“鶴汀筆譚”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 박지원이 말하는 홍대용의 우주인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던가. 홍대용은 박지원 보다 6살이 많은 선배였으나 평소에 서로 아주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박지원이 문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홍대용이 가장 열심히 연구한 분야는 과학이었다. 그는 박지원 보다 14년이나 앞서 1766년 중국을 방문했고, 그 여행의 기록을 상세하게 적어 남겼는데 이것이 <燕記>란 작품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 못지 않은 훌륭한 기행록이다.

홍대용의 科學思想을 담은 醫山問答

홍대용의 우주인 또는 외계인에 관한 생각은 이 여행기 보다는 그의 과학사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醫山問答> 속에 발견된다. 이 글은 한자로 1만2천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책이다. 차라리 책이라 부르기 보다는 좀 긴 논문이라 부르는 편이 적당할지 모르겠다.

여기 <醫山>이란 것은 醫巫閭山의 준말이다. 중국의 화북지방과 요동지방 사이에 있는 영산으로 알려진 이 산은 조선시대 중국을 방문한 우리 조상들이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며 또 그들의 관광처였다. 홍대용의 <의산문답>은 바로 이 산을 찾은 조선의 유학자가 그곳에 숨어 사는 기인을 만나 학문의 세계에 관한 문답을 나눈다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 등장하는 조선의 유학자는 이름을 盧子라 붙였고, 거기 살고 있는 신비롭고도 지혜로운 인물을 實翁이라 했다. 30년 공부로 알만큼 안다고 자부하고 있던 조선의 유학자를 “머리가 텅빈 사람”으로 지목하고, 오히려 의무려산에 숨어사는 인물을 “실제적 지식으로 머리를 채운 인물”로 꼽은 것이다.

〈의산문답〉에서 홍대용은 이 세상에는 꼭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세상의 생명체 사이에는 어떤 절대적인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박지원이 소개한 그대로 그는 태양에는 불속에 사는 생명이 있고, 달에는 물속에 사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들은 서로 환경이 다른 곳에는 살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에 의하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각각 하나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별세계에서 본다면 지구야 말로 하나의 별세계에 불과한 것이다. 고로 지구가 꼭 우주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하고, 사실은 우주는 무한하여 그 중심이란 있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무한한 우주속에는 여러가지 조건을 가진 별들이 있을 것이며, 그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홍대용은 오히려 그의 글속에서 박지원 만큼 분명하게 우주인 또는 E.T.를 말하지는 않았다. 달에서 지금 이 시간에 두 사람의 달 우주인이 난간에 기대어 지구의 찻다 기우는 이치를 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박지원의 표현이야말로 가장 분명하게 외계인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홍대용은 그런 투로 재미있는 비유를 써서 외계인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로 우주 저쪽에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한한 우주의 모든 별이 모두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홍대용의 생각이다. 〈의산문답〉에서 그는 꼭 우주인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주의 갖가지 생명체를 가상함으로써 외계인도 가상한 것이 분명하다. 우주의 모든 별이나 지구가 서로 똑같은 것임을 강조한 그는 둥근 지구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도 말했다. 말하자

“박지원이 소개한 그대로 그는 태양에는 불속에 사는 생명이 있고, 달에는 물속에 사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들은 서로 환경이 다른 곳에는 살 수 없다고 단언한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 사는 곳을 “바로 선 세계(正界)”라 하고 지구 반대쪽 사람들 보고는 “거꾸로 선 세계(側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 중국인은 중국이 지구의 중앙이라할 수 있고,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서양이 세계의 가운데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 사는 곳을 “바로 선 세계(正界)”라 하고 지구 반대 쪽 사람들 보고는 “거꾸로 선 세계(側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연장하여 홍대용은 지구의 동물이나 인간 사이에도 꼭 어느 것이 고등이고 어느 것이 하등생물이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 T. 존재에 대한 상상력은 높이평가돼야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옛 사람들은 인간이야 말로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더구나 아담과 이브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가 지배해 온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창하고 있는 이 지구 이외의 다른 별에 인간 비슷한 지능을 가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상상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우주 저쪽에도 인간 비슷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기독교같은 절대적 이념으로 묶여있지는 않았지만 동양에서도 인간이 유일한 귀한 존재라는 인식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런 선입견을 벗어 던지고 E.T.의 존재를 상상했다는 점에서 홍대용의 과학사상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다른 한편의 그의 생각은 박지원에 의해 한가지 흥미있는 화제거리로 그친 감이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것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과학적 상상력이 더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되었다면 우리 과학수준은 이미 훨씬 더 전에 지금보다 나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